제12회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동계심포지엄 결과 보고

특집

김 진 호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팀장

1. 행사개요 및 참가 인원

- □ 행 사 명 :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제12회 동계 심포지엄
- □ 행사주제 : 고등교육의 발전과 CTL의 역할
- □ 행사기간 : 2014년 2월 7일(금) 10:00~16:30
- □ 장　　소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320호, 314호, 121호, 120호
- □ 주　　최 :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 □ 주　　관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 □ 참가 인원

회원교	비회원교	주관교	합계
114개교 304명	5개교 8명	1개교 26명	338명

2. 행사 목적 및 기획 내용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전국 최대 규모로서 교수학습 프로그램 분야의 전문성 측면에서 타 대학을 선도하고 있으며, 2008년 제7회 동계 심포지엄 개최 이후 2014년 제12회 동계 심포지엄 유치를 통해 대학교육개발협의회의 발전과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지식공유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심포지엄 주관교인 서울대학교는 협의회와의 논의를 통해 심포지엄의 주제를 '고등교육의 발전과 CTL의 역할' 로 설정하고 하위 주제를 1)연구 프로젝트 발표, 2)교수지원, 3)학습지원, 4)e-Learning 지원, 5)글쓰기지원으로 각각 구성하였으며 본 심포지엄을 통해 창의적 지식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각 대학 CTL의 사례,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운영하였다.

3. 프로그램

김성수 대학교육개발센터 협의회장의 개회로 심포지엄을 시작했고, 변창구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의 환영사 및 신정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의 “후기 대중화시대 대학의 교육과 연구”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이 이어졌다. 오전 세션에 5개 연구 프로젝트 발표가 진행이 되었고 점심은 교수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오후 세션은 교수지원, 학습지원, 이러닝지원, 글쓰기지원 4개 트랙으로 나뉘어 25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이 이동하며 자유롭게 발표를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이후 각 트랙의 사회자들이 트랙별 의견을 모아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종합토론 시간을 가지고 총회 및 폐회사, 그리고 경품 추첨까지 많은 인원들이 개회부터 폐회 끝까지 남아 성황리에 심포지엄을 마칠 수 있었다.

4. 평가와 제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제12회 동계심포지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 분과 발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87%가 ‘대체로 유익했다’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새로 추가된 글쓰기 트랙의 경우 발표 주제가 추상적이고 발표 자료와 무관한 발표가 있었고, 각 사례별 대학 및 프로그램 홍보식의 내용을 지양하고 성공사례 뿐만 아니라 실패사례도 같이 발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발표 내용에 비해 주어진 시간이 촉박해서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향후 심포지엄 준비 시

에는 발표 수 및 시간을 미리 계획해서 접수된 발표과제의 주제나 내용, 다른 발표와의 관련성 등을 사전에 조정하여 운영한다면 심포지엄의 질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행사 당일에 제공된 식사 및 다과 서비스에서도 72%가 '대체로 좋았다' 이상이었고, 행사가 진행된 강연장 및 기타 편의시설에 대한 서비스도 62%가 '대체로 좋았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프로그램에 관련한 전반적인 평가 및 기타 의견에서는 참가자들 간에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세미나 장소를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부족한 점으로는 장소가 협소한 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다 보니 시간이 부족한 점, 점심 식사 장소가 멀어서 불편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 같은 의견은 학교 위치 및 센터의 구조상 제약으로 인한 문제로 안내에 더 신경을 쓰고 프로그램을 짤 때 유의해서 진행함으로써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좋은 점으로는 식사가 맛있었고, 프로그램도 유익했고 전반적으로 준비가 잘 된 행사였다는 의견이 있었다.